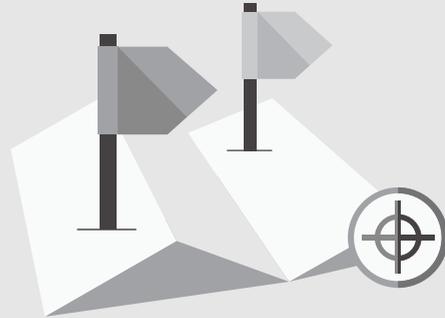


#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서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장인수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조성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선영



###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년 주기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만 4,538명이었고, 배우자와 애인 및 파트너가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1%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1-070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에 게재된 원고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sup>1)</sup>

Child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김은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영유아기의 경우, 0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사설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등 사설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13년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2018년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다. 국내의 보육·유아교육 시설 이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

1) 이 글은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제7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용은 현재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반면,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OECD 국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초등학교를 위한 돌봄 서비스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다. 이들 중 가장 공급량이 많은 것은 초등돌봄교실로, 전국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희망하는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재원 및 공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돌봄교실 수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등학교 아동의 돌봄 환경은 영유아기 돌봄 환경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자녀 양육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 사례를 모두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 단위로 자료를 재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 2. 영유아 자녀 돌봄

### 가. 이용 희망 서비스와 실제 이용 서비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돌

봄을 위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사람)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0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18.3%)이용, 본인(51.4%)이 돌보기를 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나이가 증가할수록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이용 희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4세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 6세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순으로 이용 희망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설립 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국공립, 민간)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유치원 이용(국공립, 사립)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만 5세, 6세 유아기에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의 과정이 제공됨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는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적인 욕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영유아 자녀 돌봄을 위해 1순위로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사람)을 분석한 결과이다. 0세의 경우 84.7%가 본인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0세의 희망 이용 서비스가 국공립어린이집(18.3%)이용, 본인(51.4%)으로 조사된 결과를 고려할 때,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 이용을 원하지만 본인이 돌보는 사례가

표 1. 영유아기 연령별 이용 희망 서비스(사람) 1순위

(단위: %,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전체
전체	365 (100.0)	349 (100.0)	423 (100.0)	418 (100.0)	486 (100.0)	579 (100.0)	390 (100.0)	3,010 (100.0)
국공립어린이집	67 (18.4)	128 (36.7)	165 (39.0)	176 (42.1)	133 (27.4)	136 (23.5)	72 (18.5)	877 (29.1)
직장어린이집	14 (3.8)	11 (3.2)	17 (4.0)	13 (3.1)	17 (3.5)	17 (2.9)	10 (2.6)	99 (3.3)
가정·민간어린이집	35 (9.6)	92 (26.4)	141 (33.3)	107 (25.6)	78 (16.0)	59 (10.2)	41 (10.5)	553 (18.4)
기타 어린이집	1 (0.3)	1 (0.3)	4 (0.9)	5 (1.2)	4 (0.8)	0 (0.0)	3 (0.8)	18 (0.6)
국공립유치원	2 (0.5)	1 (0.3)	6 (1.4)	34 (8.1)	95 (19.5)	153 (26.4)	133 (34.1)	424 (14.1)
사립유치원	1 (0.3)	4 (1.1)	9 (2.1)	22 (5.3)	87 (17.9)	128 (22.1)	69 (17.7)	320 (10.6)
반일제 이상 학원	2 (0.5)	7 (2.0)	7 (1.7)	17 (4.1)	21 (4.3)	23 (4.0)	19 (4.9)	96 (3.2)
기타 사설 학원	1 (0.3)	0 (0.0)	2 (0.5)	0 (0.0)	3 (0.6)	3 (0.5)	4 (1.0)	13 (0.4)
본인	188 (51.5)	83 (23.8)	53 (12.5)	32 (7.7)	30 (6.2)	29 (5.0)	24 (6.2)	439 (14.6)
배우자	4 (1.1)	1 (0.3)	3 (0.7)	0 (0.0)	0 (0.0)	2 (0.3)	1 (0.3)	11 (0.4)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24 (6.6)	11 (3.2)	11 (2.6)	3 (0.7)	8 (1.6)	11 (1.9)	1 (0.3)	69 (2.3)
시부모님(부모님)	2 (0.5)	1 (0.3)	0 (0.0)	2 (0.5)	1 (0.2)	2 (0.3)	2 (0.5)	10 (0.3)
기타 친인척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1 (0.0)
민간 돌보미	9 (2.5)	1 (0.3)	1 (0.2)	1 (0.2)	0 (0.0)	6 (1.0)	2 (0.5)	20 (0.7)
아이돌보미(정부)	14 (3.8)	8 (2.3)	1 (0.2)	3 (0.7)	6 (1.2)	4 (0.7)	8 (2.1)	44 (1.5)
방문교육교사	1 (0.3)	0 (0.0)	3 (0.7)	3 (0.7)	3 (0.6)	5 (0.9)	1 (0.3)	16 (0.5)

주: 1) 반일제 이상 학원에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이 포함됨.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44 (표 7-7).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1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예도 5.5%에 불

과해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 9.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국공립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수요도 충족

표 2. 영유아기 연령별 실제 이용 서비스(사람) 1순위

(단위: %, 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전체
전체	365 (100.0)	349 (100.0)	423 (100.0)	418 (100.0)	486 (100.0)	579 (100.0)	390 (100.0)	3,010 (100.0)
국공립어린이집	1 (0.3)	44 (12.6)	67 (15.8)	73 (17.5)	77 (15.8)	84 (14.5)	51 (13.1)	397 (13.2)
직장어린이집	1 (0.3)	4 (1.1)	13 (3.1)	12 (2.9)	10 (2.1)	8 (1.4)	7 (1.8)	55 (1.8)
가정·민간어린이집	20 (5.5)	135 (38.7)	273 (64.5)	261 (62.4)	180 (37.0)	151 (26.1)	89 (22.8)	1,109 (36.8)
기타 어린이집	0 (0.0)	1 (0.3)	5 (1.2)	4 (1.0)	4 (0.8)	4 (0.7)	4 (1.0)	22 (0.7)
국공립유치원	0 (0.0)	0 (0.0)	2 (0.5)	11 (2.6)	56 (11.5)	102 (17.6)	86 (22.1)	257 (8.5)
사립유치원	0 (0.0)	1 (0.3)	3 (0.7)	34 (8.1)	133 (27.4)	210 (36.3)	136 (34.9)	517 (17.2)
반일제 이상 학원	0 (0.0)	2 (0.6)	2 (0.5)	3 (0.7)	9 (1.9)	10 (1.7)	10 (2.6)	36 (1.2)
기타 사설 학원	0 (0.0)	1 (0.3)	1 (0.2)	2 (0.5)	0 (0.0)	4 (0.7)	4 (1.0)	12 (0.4)
본인	309 (84.7)	142 (40.7)	42 (9.9)	14 (3.3)	16 (3.3)	3 (0.5)	2 (0.5)	528 (17.5)
배우자	7 (1.9)	2 (0.6)	6 (1.4)	1 (0.2)	0 (0.0)	1 (0.2)	0 (0.0)	17 (0.6)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17 (4.7)	13 (3.7)	4 (0.9)	2 (0.5)	1 (0.2)	0 (0.0)	0 (0.0)	37 (1.2)
시부모님(부모님)	2 (0.5)	2 (0.6)	1 (0.2)	1 (0.2)	0 (0.0)	1 (0.2)	0 (0.0)	7 (0.2)
기타 친인척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민간 돌보미	4 (1.1)	1 (0.3)	2 (0.5)	0 (0.0)	0 (0.0)	0 (0.0)	0 (0.0)	7 (0.2)
아이돌보미(정부)	3 (0.8)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4 (0.1)
방문교육교사	0 (0.0)	1 (0.3)	1 (0.2)	0 (0.0)	0 (0.0)	1 (0.2)	0 (0.0)	3 (0.1)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1 (0.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46 (표 7-8).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1세와 만 2세 가정·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각각 64.5%, 도 희망과 달리 가정·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62.4%로 매우 높게 조사되어 해당 연령대를 위한 국공립 시설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

표 3. 영유아기 자녀의 돌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 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만족	전체
전체	0.4	15.0	79.5	5.1	15.4	84.6	3,010
지역( $\chi^2=1.958$ )							
동부	0.4	15.3	79.0	5.3	15.7	84.3	2,443
읍면부	0.2	13.9	81.3	4.6	14.1	85.9	567
성별							
남자	0.0	12.2	79.3	8.5	12.2	87.8	82
여자	0.4	15.1	79.5	5.1	15.5	84.5	2,928
연령							
19~24세	0.0	8.9	91.1	0.0	8.9	91.1	45
25~29세	0.9	13.0	79.7	6.5	13.9	86.1	231
30~34세	0.4	14.4	80.2	5.1	14.8	85.2	792
35~39세	0.3	15.5	78.3	5.8	15.9	84.1	1,274
40~44세	0.3	16.8	78.7	4.1	17.2	82.8	582
45세 이상	0.0	9.3	88.4	2.3	9.3	90.7	86
교육							
고졸 이하	0.0	19.6	75.8	4.5	19.6	80.4	728
대졸	0.5	13.8	80.2	5.4	14.3	85.7	2,112
대학원졸	0.0	10.0	85.9	4.1	10.0	90.0	170
취업 여부( $\chi^2=20.611^{***}$ )							
취업	0.1	17.8	76.4	5.7	17.9	82.1	1,372
비취업	0.5	12.7	82.1	4.7	13.2	86.8	1,638
가구소득							
60% 미만	0.7	20.7	77.6	1.0	21.4	78.6	295
60~80% 미만	0.0	10.3	84.9	4.8	10.3	89.7	662
80~100% 미만	0.5	16.0	79.9	3.6	16.5	83.5	613
100~120% 미만	0.4	16.5	76.7	6.4	16.9	83.1	515
120~140% 미만	0.0	17.4	76.6	5.9	17.4	82.6	304
140~160% 미만	0.9	12.7	80.8	5.7	13.5	86.5	229
160% 이상	0.5	14.8	76.0	8.7	15.3	84.7	392
영유아 자녀 수							
1명	0.2	15.2	78.6	6.0	15.5	84.5	1,662
2명	0.4	14.7	80.9	3.9	15.1	84.9	1,222
3명	1.8	13.2	81.6	3.5	14.9	85.1	114
4명	0.0	33.3	33.3	33.3	33.3	66.7	12
자녀 연령( $\chi^2=10.097$ )							
0세	0.5	16.2	78.1	5.2	16.7	83.3	365
1세	0.3	15.8	78.5	5.4	16.0	84.0	349
2세	0.7	15.4	78.3	5.7	16.1	83.9	423
3세	0.5	13.6	80.4	5.5	14.1	85.9	418
4세	0.4	12.3	81.9	5.3	12.8	87.2	486
5세	0.0	16.4	79.1	4.5	16.4	83.6	579
6세	0.3	15.6	79.5	4.6	15.9	84.1	390

주: 1) 가구소득은 2021 가구동향조사 3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함.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p<0.01, \*\*\* p<0.001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경,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47 (표 7-10).

표 4.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려움 정도 (7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1)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2.70	1.47	3,010
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3.09	1.63	3,010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2.38	1.45	3,010
4)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3.35	1.66	3,010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3.10	1.65	3,010
6)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4.34	1.74	3,01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50 (표 7-11).

4~6세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이 희망 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돌봄 만족도와 양육의 어려움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만족함, 매우 만족함)고 응답한 비율은 84.6%로 높으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취업한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취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서비스 공급 상황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 가구 및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의 어려움 정도가 제

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시간 관리와 일·생활균형 유지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반면에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거주자, 여성 응답자, 영유아 자녀 수가 많은 경우,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의 어려움 정도가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취업자는 이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4.36, 비취업자는 4.31로 취업 여부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시간 관리와 일·생활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3.54로 조사되어 비취업자(3.1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초등학생 자녀 돌봄

가. 이용 희망 서비스와 실제 이용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이용하기를 희망

표 5. 영유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단위: 점(표준편차), 명)

구분	육아·가사에 대한 배우자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생활습관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	전체
전체	2.70 (1.47)	3.09 (1.64)	2.38 (1.45)	3.35 (1.66)	3.10 (1.65)	4.34 (1.74)	3,010
지역							
동부	2.70	3.11	2.40	3.36	3.13	4.39	2,443
읍면부	2.67	3.00	2.32	3.27	2.97	4.09	567
성별							
남자	2.43	2.80	2.39	3.13	3.13	3.82	82
여자	2.70	3.09	2.38	3.35	3.10	4.35	2,928
연령							
19~24세	2.40	3.29	1.87	3.16	3.13	4.09	45
25~29세	2.67	3.21	2.12	3.27	3.06	4.28	231
30~34세	2.62	3.12	2.22	3.34	2.96	4.44	792
35~39세	2.78	3.11	2.45	3.40	3.19	4.35	1,274
40~44세	2.66	2.98	2.57	3.35	3.12	4.28	582
45세 이상	2.62	2.69	2.59	2.93	3.02	3.86	86
교육							
고졸 이하	2.75	3.20	2.47	3.35	3.48	4.34	728
대졸	2.66	3.04	2.36	3.34	3.01	4.31	2,112
대학원졸	2.90	3.21	2.21	3.46	2.64	4.64	170
취업 여부							
취업	2.77	2.91	2.46	3.54	3.10	4.36	1,372
비취업	2.64	3.23	2.31	3.19	3.10	4.31	1,638
가구소득							
60% 미만	2.41	3.29	2.38	3.35	3.70	4.27	295
60~80% 미만	2.68	3.14	2.36	3.18	3.21	4.21	662
80~100% 미만	2.72	3.19	2.37	3.29	3.16	4.38	613
100~120% 미만	2.74	3.11	2.44	3.36	3.07	4.33	515
120~140% 미만	2.86	3.02	2.38	3.58	3.04	4.42	304
140~160% 미만	2.72	2.75	2.37	3.41	2.85	4.35	229
160% 이상	2.73	2.89	2.37	3.47	2.59	4.45	392
영유아 자녀 수							
1명	2.63	2.95	2.31	3.26	3.00	4.18	1,662
2명	2.73	3.20	2.50	3.36	3.18	4.47	1,222
3명	3.32	3.87	2.24	4.21	3.45	5.00	114
4명	2.33	3.33	2.33	5.00	5.33	5.67	12
자녀 연령							
0세	2.55	3.27	1.79	3.50	2.89	4.65	365
1세	2.84	3.24	2.16	3.47	2.96	4.57	349
2세	2.70	3.11	2.23	3.36	2.97	4.50	423
3세	2.78	3.12	2.44	3.32	3.13	4.35	418
4세	2.65	2.94	2.50	3.27	3.10	4.17	486
5세	2.74	3.02	2.64	3.30	3.23	4.16	579
6세	2.60	2.98	2.70	3.27	3.32	4.09	39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41 (표 7-12).

표 6.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이용 희망 서비스(사람) 1순위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전체	378 (100.0)	397 (100.0)	402 (100.0)	380 (100.0)	370 (100.0)	282 (100.0)	2,209 (100.0)
초등돌봄교실	84 (22.2)	69 (17.4)	39 (9.7)	32 (8.4)	22 (5.9)	14 (5.0)	260 (11.8)
방과후학교	91 (24.1)	104 (26.2)	102 (25.4)	93 (24.5)	88 (23.8)	44 (15.6)	522 (23.6)
지역아동센터	6 (1.6)	7 (1.8)	9 (2.2)	15 (3.9)	7 (1.9)	7 (2.5)	51 (2.3)
다함께돌봄센터	9 (2.4)	9 (2.3)	3 (0.7)	11 (2.9)	9 (2.4)	5 (1.8)	46 (2.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 (0.5)	1 (0.3)	5 (1.2)	8 (2.1)	11 (3.0)	9 (3.2)	36 (1.6)
복지관주민센터	9 (2.4)	16 (4.0)	13 (3.2)	10 (2.6)	16 (4.3)	14 (5.0)	78 (3.5)
민간 학원, 사설 공부방	140 (37.0)	146 (36.8)	180 (44.8)	181 (47.6)	167 (45.1)	159 (56.4)	973 (44.0)
본인	25 (6.6)	23 (5.8)	30 (7.5)	20 (5.3)	26 (7.0)	13 (4.6)	137 (6.2)
배우자	0 (0.0)	2 (0.5)	0 (0.0)	2 (0.5)	3 (0.8)	0 (0.0)	7 (0.3)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2 (0.5)	9 (2.3)	7 (1.7)	2 (0.5)	4 (1.1)	6 (2.1)	30 (1.4)
시부모님(부모님)	4 (1.1)	2 (0.5)	3 (0.7)	2 (0.5)	5 (1.4)	2 (0.7)	18 (0.8)
친인척	2 (0.5)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민간 돌보미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0)
아이돌보미(정부)	0 (0.0)	1 (0.3)	1 (0.2)	1 (0.3)	2 (0.5)	2 (0.7)	7 (0.3)
방문교육교사	4 (1.1)	8 (2.0)	9 (2.2)	3 (0.8)	10 (2.7)	7 (2.5)	41 (1.9)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53 <표 7-13>.

하는 돌봄 서비스(사람) 1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저학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고학년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5학년까지 24%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6학년은 해당 비율이 15.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민간 학원이나 사설 공부방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은 해당 비율이 56.4%까지 증가하여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2학년도 민간 학원 및 사설 공부방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36%로,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이용 희망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이용 비율을 합하면 해당 비율이 1학년의 경우 46.3%로 민간 학원 및 사설 공부방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초등학생 자녀가 현재 1순위로 이용

표 7.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돌봄 실제 이용 서비스(사람) 1순위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전체	377 (100.0)	397 (100.0)	400 (100.0)	381 (100.0)	371 (100.0)	279 (100.0)	2,205 (100.0)
초등돌봄교실	46 (12.2)	31 (7.8)	17 (4.3)	6 (1.6)	11 (3.0)	7 (2.5)	118 (5.4)
방과후학교	89 (23.6)	81 (20.4)	71 (17.8)	75 (19.7)	74 (19.9)	37 (13.3)	427 (19.4)
지역아동센터	4 (1.1)	7 (1.8)	8 (2.0)	8 (2.1)	6 (1.6)	5 (1.8)	38 (1.7)
다함께돌봄센터	3 (0.8)	5 (1.3)	0 (0.0)	2 (0.5)	0 (0.0)	0 (0.0)	10 (0.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0.3)	0 (0.0)	0 (0.0)	1 (0.3)	1 (0.3)	0 (0.0)	3 (0.1)
복지관주민센터	1 (0.3)	0 (0.0)	2 (0.0)	3 (0.5)	2 (0.8)	2 (0.5)	10 (0.7)
민간 학원, 사설 공부방	195 (51.7)	239 (60.2)	272 (68.0)	252 (66.1)	249 (67.1)	205 (73.5)	1,412 (64.0)
본인	25 (6.6)	25 (6.3)	19 (4.8)	19 (5.0)	16 (4.3)	14 (5.0)	118 (5.4)
배우자	0 (0.0)	0 (0.0)	0 (0.0)	0 (0.0)	1 (0.3)	0 (0.0)	1 (0.0)
친정 부모님(장인·장모님)	5 (1.3)	3 (0.8)	1 (0.3)	2 (0.5)	0 (0.0)	1 (0.4)	12 (0.5)
시부모님(부모님)	0 (0.0)	1 (0.3)	1 (0.3)	0 (0.0)	1 (0.3)	2 (0.7)	5 (0.2)
친인척	1 (0.3)	0 (0.0)	0 (0.0)	0 (0.0)	0 (0.0)	1 (0.4)	2 (0.1)
민간 돌보미	0 (0.0)						
방문교육교사	7 (1.9)	5 (1.3)	9 (2.3)	9 (2.4)	7 (1.9)	3 (1.1)	40 (1.8)
형제자매	0 (0.0)	0 (0.0)	0 (0.0)	1 (0.3)	1 (0.3)	1 (0.4)	3 (0.1)
아이 혼자	0 (0.0)	0 (0.0)	0 (0.0)	1 (0.3)	2 (0.5)	1 (0.4)	4 (0.2)
기타	0 (0.0)	0 (0.0)	0 (0.0)	2 (0.5)	0 (0.0)	0 (0.0)	2 (0.1)

주: 1) 가구소득은 2021 가구동향조사 3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함.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55 (표 7-14).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사립)를 분석한 결과이다. 1학년은 12.2%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23.6%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학원·시설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은 1학년이 51.7%이며 6학년은 73.5%에 이른다. 앞서 이용 희망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민간 학원·시설 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희망 비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 등의 이유로 민간 학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민간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43.1%로 조사된 바 있다(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다만, 해당 조사는 복수 응답 결과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추가로 시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 응답률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초등학교령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을 원하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자부담 구조여서 돌봄교실보다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1학년의 경우 이용 희망 비율과 실제 이용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초등돌봄교실은 희망하는 아동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을 중심으로 확대하되 방과후학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돌봄 만족도와 양육의 어려움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80.0%가 만족한다(만족함, 매우 만족함)고 응답하여 영유아기(84.6%)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는 비율이 21.9%로 나타났으나, 영유아기와 달리 취업 여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저소득 가구는 불만족 비율이 높고, 1학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모가 돌보는 경우와 친인척·개별 돌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6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 양육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시간 관리와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 ‘생활습관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순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육비 부담과 생활습관 관련 갈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유아기보다 낮게 나타나 초등학교령기에 양육의 어려움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등학생 자녀는 민간 학원 및 시설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인

표 8.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돌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만족	전체	
전체	0.8	19.3	76.3	3.6	20.0	80.0	2,210	100.0
지역( $\chi^2=8.368^*$ )								
동부	0.9	19.5	76.5	3.1	20.4	79.6	1,766	100.0
읍면부	0.4	18.3	75.5	5.8	18.7	81.3	444	100.0
성별								
남자	0.0	20.2	72.8	7.0	20.2	79.8	104	100.0
여자	0.8	19.2	76.5	3.5	20.0	80.0	2,105	100.0
연령								
25~29세	0.0	14.0	73.9	12.1	14.0	86.0	32	100.0
30~34세	0.3	27.0	71.4	1.3	27.3	72.7	127	100.0
35~39세	0.9	17.2	77.4	4.6	18.0	82.0	654	100.0
40~44세	0.8	18.2	77.5	3.5	19.0	81.0	967	100.0
45세 이상	0.7	23.1	73.6	2.6	23.8	76.2	429	100.0
교육								
고졸 이하	0.9	22.0	74.8	2.3	22.9	77.1	629	100.0
대졸	0.8	18.1	77.1	4.0	18.8	81.2	1,457	100.0
대학원졸	0.3	19.4	74.7	5.5	19.8	80.2	124	100.0
취업 여부( $\chi^2=5.790$ )								
취업	0.9	21.0	74.4	3.7	21.9	78.1	1,203	100.0
비취업	0.7	17.2	78.6	3.6	17.8	82.2	1,007	100.0
가구소득								
60% 미만	0.4	22.4	70.9	6.3	22.8	77.2	234	100.0
60~80% 미만	1.0	20.2	74.7	4.1	21.3	78.7	357	100.0
80~100% 미만	0.4	19.8	77.0	2.8	20.2	79.8	422	100.0
100~120% 미만	1.0	22.8	73.9	2.3	23.8	76.2	393	100.0
120~140% 미만	1.2	17.3	79.2	2.2	18.5	81.5	237	100.0
140~160% 미만	1.2	15.6	78.7	4.5	16.8	83.2	194	100.0
160% 이상	0.5	15.2	80.0	4.3	15.7	84.3	373	10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0.9	18.8	77.2	3.0	19.8	80.2	1,230	100.0
2명	0.5	18.7	76.0	4.8	19.2	80.8	868	100.0
3명	0.9	31.6	65.9	1.6	32.5	67.5	102	100.0
4명	0.0	0.0	100.0	0.0	0.0	100.0	9	100.0
학년								
1학년	0.8	21.5	73.5	4.2	22.3	77.7	379	100.0
2학년	0.5	17.3	77.9	4.2	17.9	82.1	398	100.0
3학년	1.1	17.8	77.7	3.4	18.9	81.1	401	100.0
4학년	0.8	21.8	72.8	4.5	22.7	77.3	381	100.0
5학년	0.6	17.9	78.6	2.8	18.5	81.5	369	100.0
6학년	0.7	19.5	77.6	2.2	20.2	79.8	281	100.0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불만족	만족	전체	
방과후 이용 서비스								
학교돌봄	0.8	15.7	78.7	4.8	16.5	83.5	546	100.0
지역돌봄(마을돌봄)	0.5	12.3	83.7	3.6	12.8	87.2	62	100.0
민간 학원	0.5	18.4	77.8	3.3	18.9	81.1	1,411	100.0
부모	3.2	35.8	58.5	2.5	39.0	61.0	120	100.0
친인척·개별 돌봄	0.0	40.6	54.8	4.6	40.6	59.4	63	100.0
기타	17.8	49.3	32.9	0.0	67.1	32.9	8	100.0

주: 1) 가구소득은 2021 가구동향조사 3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함.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4) 최소 예상 셀 빈도가 1보다 작은 경우  $\chi^2$ 값을 제시하지 않음.  
 5) \*  $p<0.05$ , \*\*  $p<0.01$ , \*\*\*  $p<0.001$  6)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역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복지관·주민센터), 친인척·개별 돌봄(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기타 친인척, 민간 돌봄미, 아이돌봄미, 방문교육교사), 기타(형제자매, 아이 혼자, 기타)를 포함함.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58 <표 7-16>.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학령기에 는 학업, 취미 등 생활습관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영유아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에서는 현재 사교육을 이용하는 영역들(학습 및 예체능)에 대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정도를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거주자, 여성 응답자, 25~29세,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한 경우, 초등학교 자녀가 많은 경우 ‘양육과 가사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의 어려움 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저소득 가구, 초등학교 자녀가 많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균형 유지의 어려움’ 정도가 다소 높게 조사

표 9.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려움 정도 (7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1)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2.52	1.422	2,210
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2.80	1.532	2,210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3.18	1.589	2,210
4)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3.28	1.609	2,210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3.46	1.733	2,210
6)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3.93	1.734	2,210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59 <표 7-17>.

표 10.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도: 응답자 특성별

(단위: 점(표준편차), 명)

구분	육아·가사에 대한 배우자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생활습관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	전체
전체	2.52 (1.42)	2.80 (1.53)	3.18 (1.59)	3.28 (1.61)	3.46 (1.73)	3.93 (1.73)	2,210
지역							
동부	2.49	2.76	3.14	3.28	3.49	3.90	1,766
읍면부	2.62	2.93	3.32	3.31	3.35	4.06	446
성별							
남자	1.89	2.84	3.01	3.48	3.61	3.72	104
여자	2.55	2.80	3.19	3.28	3.46	3.94	2,105
연령							
25~29세	2.82	3.17	3.11	3.80	3.26	4.71	32
30~34세	2.32	2.84	3.30	3.43	3.81	3.99	127
35~39세	2.53	2.84	3.14	3.27	3.48	3.95	654
40~44세	2.53	2.76	3.14	3.28	3.36	3.89	967
45세 이상	2.53	2.78	3.29	3.25	3.57	3.93	429
교육							
고졸 이하	2.55	3.01	3.30	3.44	3.85	4.14	629
대졸	2.50	2.71	3.15	3.22	3.32	3.86	1,457
대학원졸	2.66	2.73	2.96	3.29	3.23	3.77	124
취업 여부							
취업	2.56	2.71	3.22	3.54	3.48	4.10	1,203
비취업	2.47	2.91	3.13	2.98	3.44	3.73	1,007
가구소득							
60% 미만	2.04	3.07	3.32	3.43	4.32	4.14	234
60~80% 미만	2.68	3.13	3.24	3.29	3.83	3.98	357
80~100% 미만	2.51	2.87	3.20	3.14	3.43	3.84	422
100~120% 미만	2.48	2.74	3.13	3.27	3.39	3.88	393
120~140% 미만	2.62	2.59	3.24	3.37	3.39	4.10	237
140~160% 미만	2.75	2.80	3.29	3.47	3.17	3.94	194
160% 이상	2.53	2.42	2.97	3.23	2.88	3.80	373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2.50	2.74	3.14	3.13	3.36	3.78	1,230
2명	2.56	2.83	3.21	3.42	3.51	4.05	868
3명	2.53	2.98	3.47	3.93	4.17	4.68	102
4명	1.49	4.68	2.32	4.84	4.84	5.84	9
자녀 학년							
1학년	2.50	2.84	2.88	3.25	3.39	4.01	379
2학년	2.56	2.81	3.07	3.21	3.36	3.91	398
3학년	2.49	2.84	3.13	3.36	3.42	3.92	401
4학년	2.57	2.82	3.25	3.35	3.57	3.99	381
5학년	2.56	2.77	3.44	3.37	3.60	3.96	369
6학년	2.42	2.66	3.38	3.12	3.43	3.78	281

구분	육아·가사에 대한 배우자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생활습관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균형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양육과 가사에 대한 신체적 고단함	전체
방과후 이용 서비스							
학교돌봄	2.54	2.86	3.23	3.30	3.47	4.06	546
지역돌봄	2.71	3.09	3.05	3.80	4.06	4.33	62
민간 학원	2.51	2.76	3.16	3.25	3.41	3.88	1,411
부모	2.56	2.90	3.21	3.12	3.47	3.74	120
친인척·개별 돌봄	2.25	2.71	3.31	3.75	3.98	4.11	63
기타	2.84	2.15	3.57	3.20	3.77	3.79	8

주: 1) 가구소득은 2021 가구동향조사 3분기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571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함.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영,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가족과 출산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261 (표 7-18).

되었다. 결국,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과 가사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과 함께 ‘육아·가사에 따른 일·생활 균형 유지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나가며

자녀 돌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가구에서는 국공립 시설 이용을 희망하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가정·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희망 비율을 앞서고 있다. 이는 적어도 국공립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0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18.4%)뿐만 아니라 가정·민간어린이집(9.6%) 이용을 원함에도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0.3%, 5.5%로 조사되어,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세의 경우 부모 본인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51.5%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84.7%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0세의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가 딸이 가구와 같은 실수요자의 미충족 수요라면 영아반의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홀벌이 가구의 미충족 수요라면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등과 같은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현재 돌봄 상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0%로 영유아기 84.6%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나 실제로는 민간 학원·시설 공부방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지만, 애초에 사교육 등 민간 학원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나 마을돌봄을 통한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학습적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육아와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의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어려움 정도는 영유아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서비스 이용이 충족되지 못해 가정돌봄을 하게 됨에 따라 양육 부담이 가중된 결과일 수도 있다.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는 데 따른 신체적 소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영유아의 국공립 시설 이용 희망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이용 희망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이용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코로나19 시기에 이루어져 해당 시기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환경 차이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참고문헌

김은정, 장수정, 정영모, 오신휘.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 Child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unjung Ki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 of care for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using data from the 2021 Survey of Family and Fertility. The supply of facility services for 0-year-olds fell short of existing demand.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necessary to expand the supply of not only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but also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s. In the case of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ate of using other services such as private academies is high even though they wished to use public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ish to use private facilities, such a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was quite high. Therefore, public care services need to provide high-quality programs that fully reflect the needs for learning and various activities. Finally as the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and physical hardship due to housework were found to be great, it is necessary to expand domestic childcare support along with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institutional care services.